Global Journal of human-social science: A
Arts & Humanities - Psychology
Volume 16 Issue 2 Version 1.0 Year 2016
Type: Double Blind Peer Reviewed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Publisher: Global Journals Inc. (USA)
Online ISSN: 2249-460X & Print ISSN: 0975-587X

Origin and Meaning of Circular Stone Pagoda in Unjusa Temple

By Kim, Ki-Yong

Abstract- There are lots of and kinds of stone pagoda and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in Hwasun, Jeonnam, which is thus called as Cheontap(千塔) or Cheonbul.(千佛)

Several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in Unjusa though, the foundation purpose or background motivation is yet wrapped in mystery.

Circular shape is representative pagoda of Unjusa made of round frame or spherical roof but circular stone pagoda is unusual that there is no similar example found in India or China as well as in Korea.

Located in the symbolic center, Circular stone pagoda is a key to understand Unjusa.

Yundeung(輪燈) is made of stone for circular stone pagoda and there are craft lamp and large lamp.

The large lamp, for the palace courtyard on the occasion of Palgwanhoe, (八關會) consists of discs and light on each disc. Outdoor lamp of circular stone pagoda made of stone for permanent preservation purpose.

Keywords: unjusa temple, circular stone pagoda (cylindrical stone pagoda), circular lamp (yundeung輪燈), stone lamp, palgwanhoe (八關會).

GJHSS-A Classification : FOR Code: 220499

Strictly as per the compliance and regulations of:

© 2016. Kim, Ki-Yong. This is a research/review paper,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3.0 Unported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permitting all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 and Meaning of Circular Stone Pagoda in Unjusa Temple
운주사 원형석탑의 시원과의미

Kim, Ki-Yong

김기용**

Abstract- There are lots of and kinds of stone pagoda and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in Hwasun, Jeonnam, which is thus called as Cheontap(**千塔**) or Cheonbul.(**千佛**)

Several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in Unjusa though, the foundation purpose or background motivation is yet wrapped in mystery.

Circular shape is representative pagoda of Unjusa made of round frame or spherical roof but circular stone pagoda is unusual that there is no similar example found in India or China as well as in Korea.

Located in the symbolic center, Circular stone pagoda is a key to understand Unjusa.

Yundeung(**輪燈**) is made of stone for circular stone pagoda and there are craft lamp and large lamp.

The large lamp, for the palace courtyard on the occasion of Palgwanhoe, (**八關會**) consists of discs and light on each disc. Outdoor lamp of circular stone pagoda made of stone for permanent preservation purpose.

Unjusa is a very special temple with stone-yundeung for circular stone pagoda.

In this study, a circular stone pagoda that is the source of yundeung said. Unjusa circular stone pagoda next to the title of 'yundeung pagoda' and proposes to call.

주제어: 운주사, 원형석탑, 윤등, 석등, 팔관회

Keywords: unjusa temple, circular stone pagoda (cylindrical stone pagoda), circular lamp (yundeung 輪燈), stone lamp, palgwanhoe (八關會).

I. 운주사석탑과윤등의의미

a) 운주사원형석탑연구의의미

전남화순군도암면소재운주사는천불천탑사원으로불릴정도로각양각색의많은석탑과석불이있다. 그간운주사의건립주체, 건립배경, 건립시기에대하여다양한해석이있어왔다. 즉왜하나의가람에다양한석탑과석불이조성되었는가하는의문에의한답이무엇인가에대한해석이다양한견해로제시된것이다 .[1]

운주사석탑은현재22기로파악되고, 이중원형석탑은-4기가알려져있으며전형적인방형탑에대하여이형적인탑으로분류되고있다.원형석탑은탑신이나옥개석이원형을이루고있으며원반형과원구형으로구분되고있다. 원형석탑은 기존석-탑과전혀다른양식으로유래를찾아볼수없는파격적인조영기법을보여주기때문에한국은물론인도, 중국등불교문화권의석탑-에서그원형(原形)을찾지못하고있다.

원반형원형석탑으로서대표적인원형다층석탑은운주사의공간적중심에위치하고있다. 운주사하면반드시언급되는-쌍배불(雙背佛)이있는석조감실앞에원형다층석탑이위치하고있다.상징적 중심인 마애여래불앞의명당자리에는명당원-형석탑이위치하고있다.운주사의중심위치의석탑은원형석탑이된다고할수있는것이다.

원형석탑은둔황석굴의약사경변(藥師經變)의벽화, 팔관회(八關會) 설행시에궁궐의구정(毬庭)에한시적으로설-치하던윤등(輪燈)을석재로번안한석조물이라고할수있다.원형석탑은바퀴모양의원반을층층이적층하여여러개의등잔을놓을수있도록시설한윤등적인성격을가진석탑으로판단되는것이다.

[1] 성춘경,「운주사의천불천탑」, 月刊全每. 1980. 2. : 關野貞,「朝鮮의建築과藝術, 岩波書店」, 東京.1941. : 정영호,「운주사」, 전남대박물관. 1984 :박경식,「화순운주사의석탑에대한고찰」, 『박물관기요』5, 단국대박물관, 1989. : 신영훈, 불교신문, 1989년4월5일자, 1246호. : 송기숙,「운주사천불천탑관계설화」,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박물관, 1991. : 朴泰洵,『화순운주사천불천탑이야기』, 월간중앙, 1989.1. : 김동수,「운주사의역사적고찰」, 『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 이태호·황호균,「운주사불상조각의형식적특징과편년고찰」,『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박물관,1991. : 김창현,「고려시대능성운주사에대한탐색」,『史叢』72, 2011.1.

Author: e-mail: wunkwang@hanmail.net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운주사에는많은석불석탑이있음에도사찰중심위치에배치되는석등이존재하지않는다.[2] 이유는원형석탑이석등의역할을대행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되고있다.원형석탑은옥외연등시설인석등의범주로서석탑의명칭을부여한다면윤등석탑으로호칭할수있을것이다.[3] 석탑과석등은그실체및상징적인위계가다르기때문에현재까지운주사의석탑에대한해석은다양할수밖에없었다.즉기본적으로불교적입장에서운주사는미륵도량으로출발하여풍수적비보와도교, 밀교와천문학적해석등이있었던것이다.

본연구는운주사의원형석탑이윤등을석제로번안한윤등적인성격을가진석탑이라는사실을밝히고자하였으며, 이는운주사의연원과성격, 정체성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하겠다.

b) 윤등의의미와배치형식.

윤등은수레바퀴형태의등을일컫는다. 불교에서수레바퀴는법륜(法輪dharma-cakra)을뜻한다. 법륜은부처님이사르나트의녹야원에서최초의설법을통해진리를설했던것을상징한다. 또한법륜은태양의상징이며정법의상징이기도하였다. 동시에삶과죽음을반복하는윤회의상징이며왕권의상징이기도하다.[4]그러므로법륜은불교의가장중요한상징물로표현되었다. 탑의상륜부와인도아소카왕기념석주의꼭대기에법륜을장착하여불법이멀리퍼져나가기를염원하기도하였다. 다르마-차크라라는이름의살이여덟개달린바퀴는부처와불교의가장중요한상징들중하나다. 부처는처음가르침을설파할때이법륜을돌렸다고하며, 바퀴에달린여덟개의살은깨달음으로가는불교의팔정도(八正道)를상징하였던것이다.[5]

윤등은부처님과불법을상징하는법륜과등불로구성된다등식(多燈式) 연등시설이다. 불교의례및공양중에서필수적인법구가되는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한국에서윤등은고려태조원년11월조의팔관회기록에처음나타나고있다.[6] 팔관회를베풀면서궁궐의구정에윤등1개소를설치하고향등(香燈)을벌여놓아밤새불을비추었다는기록이다. 고려팔관회는국가의주요의례로서서경은10월, 개경은11월, 양경에서매년설행했으며, 신라의전통을그대로이은점으로-볼때윤등은신라때부터설치했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

민가의윤등설치는고려후기4월초파일에집집마다연등했다는사례가있다.[7] 이때설치한연등이소형윤등의형태로추정된다. 그이전에는팔관회의구경꾼이많았다는기록외에는보이지않는다. 중국은불교전래이전부터정월15일상원(上元)에연등을하는도교(道教) 풍속이있었으며, 남북조시대에불교와습합하여활성화되기시작하여불교적인연등으로변모하게되었던것이다.양나라풍속서인『형초세시기』[8] 2월세시에집에윤등을달고향화를들고행성을한다고하였다.

「2월8일은석가모니가인간세상에내려온날이다. 석가모니가도를깨달았을때에신도들의집에서는팔관재계를하고차륜과보개와칠변팔회의등을단다. 이른아침에향화를들고성을따라한바퀴도니이를행성이라한다.」[9]

윤등은석가께서7곳의장소에서8번설법했다는화엄경의칠처팔회를상징하는차륜과보개형태의모습을하고있다. 등불의차-륜과보개는부처와불법을상징하고, 불빛이사방팔방으로비춤으로서불법이널리알려져광명의세계를이룬다는의미이다. 세시기에서민가의윤등은들고다니거나매다는소형의공예적인윤등임을알수있다.

[2]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사찰의중심영역에는석등이위치하고있다.

[3] 윤등은옥외연등시설로서석등의범주라고할수있다. 현존하는중국최고의석등인태원동자사(556년) 석등은연등석탑으로호칭되고있다.

[4] 이미림, 이주형외,『동양미술』, 미진사, 서울, 2007, 210쪽.

[5] Clare Gibson, 장아름역,『상징, 알면보인다』, 비즈앤비즈, 서울, 2010, 115쪽.

[6]『高麗史節要』권1 태조원년11월조.

[7]『高麗史』세가40 공민왕13년4월辛丑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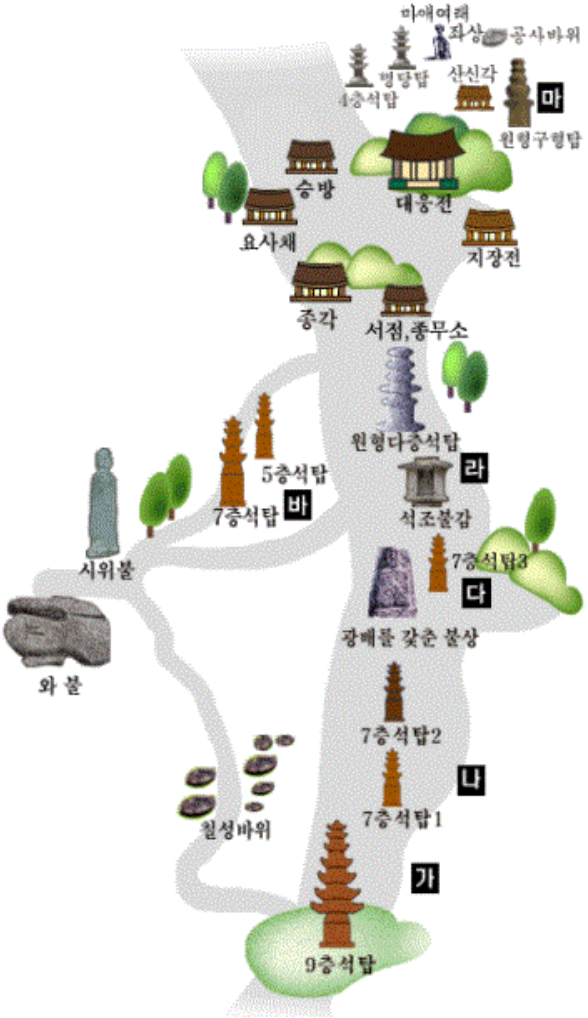
[8]『荊楚歲時記』는중국의양자강중류유역에있는荊楚지방의연중세시기이다. 남북조시대남조의세번째왕조인梁나라(502년~557년) 宗懍이지은『형초기』를7세기초隋나라의杜公瞻이증보加注하여『荊楚歲時記』라하였다. 현존하는중국세시기중에서가장오래된것으로초나라특유의세시뿐만아니라일반적인풍습도기술되어있는책이다.

[9]『중국대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2006, 50쪽.「二月八日釋氏下生之日迦文成道之時信捨之家建八關齋戒車輪寶蓋七變八會之燈平旦執香花遶城一匝謂之行城」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II. 원형석탑의위치의미해석

a) 운주사원형석탑의배치형식과가람배치



운주사는각양각색의많은석탑 · 석불, 탑상(塔像)-이산재해있어천불천탑사원으로알려져있다. 운주사는늦어도-11세기초반에창건되어, 12세기에이르러중심축선이바뀌는대-규모불사를시행하여사원으로서의모든기능을갖춘것으로조사되었다.[10]

건물지는용강리와대초리일대의2개지역에분포되었으며, 초창기건물은용강리에집중되어배치되었다. 대초리-건물지는정유재란이후폐사되었다가19세기~20세기초에건립된소규모건물지로확인되었다. 그러므로폐사전의초창기운-주사는용강리건축물지를중심으로한구역과석탑 · 석불이있는탑상구역2곳으로분리경영되었다고할수있는것이다.

운주사석탑은1941년에22기의석탑이있던것으로기록되었으나1981년조사에서는18기로파악되었다. 1991년의-조사에서는석탑형식을갖춘것이18기, 석주형으로1층탑신만-남은것이3기로모두21기의석탑이조사되었다. 이어1989년4-차발굴조사에서원반형폐탑재1기가추가되어모두22기로파악되었다. 또한100여개에이르는폐탑재-가운데적어도10여기-의석탑이복원가능하므로30여기이상-의석탑이존재했을것-으로확인되고있다.[11]현재석탑형식을갖춘운주사석탑은방형석탑11기, 원형석탑4기, 모전계열석탑2기, 석주형폐-탑4기-가있는것이다.

운주사석탑은진입로를따라남에서북으로산곡의평지에13기, 와불이있는서쪽산등성이4기, 동쪽산등성이4기, 도합21기가배치되어있다. 동서좌우산등성이각1열과중심-평지1열로전체3열의축선을이루고있다. 이러한배치는삼국시-대이래금당과1~2기의탑이남북자오선축선을따라주불전을구성하는전통사원배치와는다른구성이된다. 이때문에운주사-배치는미륵도량, 도교사원, 밀교사원등바라보는관점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고있다.

기존사원의정형적인석탑배치를기준으로운주사석탑배치를분석한2가지연구사례가있다. 하나는Fig.1의운주사안-내도에서'나'와'마' 석불군을제외한다른석불군은뒤쪽에석탑-을배치하여불상과탑이하나의소가람을이루고조성했다는배치이다.[12] 운주사는소-규모가람이여럿있는데각기탑과불상이-소가람을이룬다는것이다.이는1탑1금당이나쌍탑1금당처럼불-상의전후에탑-을배-치하는방식을따른것으로보고있다.그리-고전체사역의정-중앙-공간적중심은석조불감구역이며, 맨뒤-에위치한마애여래불은-조망적중심위치로해석할수있다.

또하나의배치관점으로서박경식은석조불감의남쪽에있는석조불감앞7층석탑과서쪽산등성이에있는거북바위교차문7층석탑을잇는동서축선이운주사남북끝에위치한석탑과의거리를2등분하는중앙축선이된다고하였다. 석탑간의거리나-방위는규칙적이지못하나각각의석탑은계획된조영에의하여7개의축선및4개의군으로분포되었다고하였다. 석탑이현재의-위치에건립되어위치변동이없다고전제하였고, 중앙축선의석-탑이우선적으로건립되었으며, 이를중심으로각축선의중심탑-

[10] 운주사에대한연구는1984년부터1991년까지전남대박물관에서4차에걸친발굴조사와2회의학술조사를실시했다. 또한2013년과2014년에는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위한학술연구가수행되었다.

[11] 천득염,「운주사석탑의양식적특성과세계유산으로서의미」,『호남문화연구』제54집, 호남학연구원, 2013, 264쪽. 황호균,『운주사자료집성』, 전남대박물관 · 화순군청, 2009, 123쪽.

[12] 황호균,앞의책, 2009, 52쪽, 58-59쪽.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을건립한후나머지석탑을사이사이에세운것으로건탑순위를추정하였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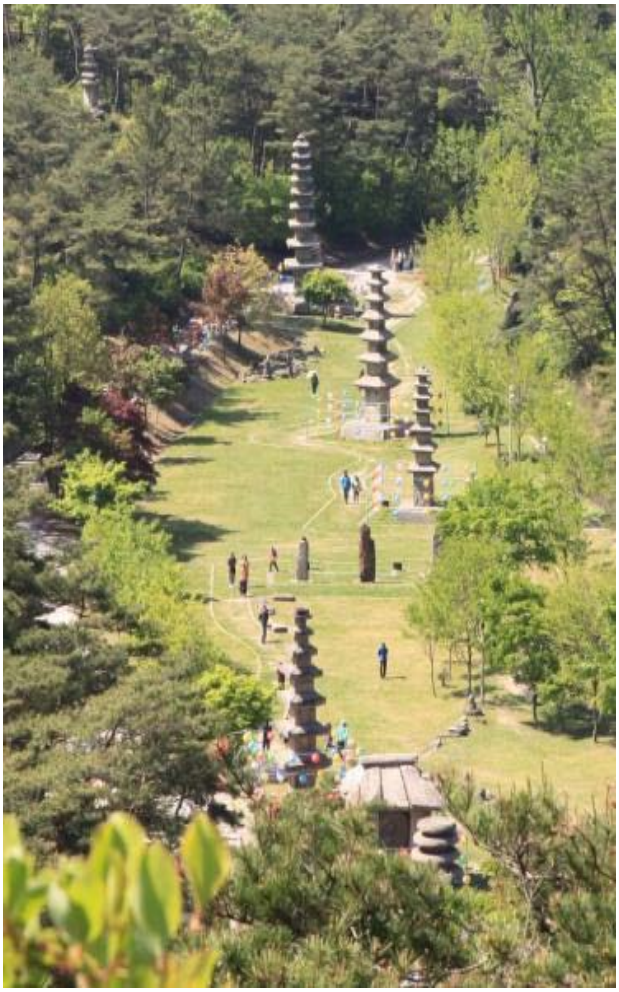


Figure 2 : Unjusa view

두사례가배치의관점에서차이는있지만석탑・석불이각각구역을이루고분할된다는점과석조불감주위의구역을사역(寺域) 중심으로보고있다. 운주사에대한가장오래된기록인『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수많은불상, 불탑가운데쌍배불이있는석조불감을강조한점역시이와같은중심적위치에기인한다고할수있는것이다.[14]

일반적으로사찰을건립할때에는중심영역의금당과탑을우선적으로조영한다고한다. 운주사는비정형적인배치와주불전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원의성격을추정하기어렵다. 하지만축조물이집합된곳은중심이있으며,중심은크게공간적중심과-상징적중심으로나눌수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석조불-감구역은사역의중앙에자리하여운주사의공간적중심-이된다고할수있다. 상징적중심은풍수지리적인비보성격에부-합되는중-심적위치가된다. 상징적위치는마애여래불이위치-한조망적중-심위치로서소위명당지역으로불리는풍수지리적-인구역이된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운주사중심위치를공간과상징적인2구역으로설정하면각구역의중심시설은결국원형석탑이된다. 즉석조-불감구역은원형다층석탑이, 마애여래불의명당구역에-는일-명명당탑으로불리고있는원형석탑[15]이배치된것이다. 그리고-두중심구역이운주사의주불전과같은역할을하게되므로이구역에있는원형석탑은운주사전체의성격과정체성을함유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i. 운주사원형석탑의의미와형식

원형석탑은전형적인방형석탑에대하여이형적인탑으로탑신이나옥개석이원형을이룬탑을말한다. 원형석탑은원반-형과원구형으로구분할수있다.

운주사원형석탑은4기가있으며원반형은원형다층석탑, 명당원형석탑, 실패형원형석탑, 원구형은발형다-층석탑이있다.

운주사평지구역에는원형석탑과방형석탑이함께배치되어있다. 이중에운주사의성격과부합되는중심적인석탑은운-주사만의독창적인석탑인원형석탑이라고추정된다. 원형석탑-으로분류되지는않았지만석주형폐탑4기역시원형석탑의범주가될가능성이있다. 찻집이있는지혜당건물뒤편산비탈의석-주형폐탑이『조선고적도보』6권(1917년)의사진에원반형석탑으로촬영되었기때문이다.[16]

이외에원형석탑부재가운주사경내에많이산재되어있어원형석탑은더있었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 현재사역에산재-되어확인이가능한원형석탑의부재는원형탑신석7개, 원구형-옥개석1개, 원반형옥개석20개, 탑신석1개, 탑신면석2개, 상륜부재6개등이있다.[17] 이외에결실로추정되는원형석탑부재를모두합한다면최소한5기이상의원형석탑을조립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3] 박경식,「화순운주사의석탑에대한고찰」,『박물관기요』5, 단국대박물관,1989. 12-14쪽.

[14]『東國輿地勝覽』권40,「綾城縣佛宇條雲住寺在千佛山寺之左右山背石佛石塔一千又有石室二石佛相背而坐」

[15] 이후명당구역에있는원형석탑, 일명명당탑은이후로명당원형석탑으로호칭하고자한다.

[16] 황호균, 앞의책, 2009, 144쪽.

[17] 황호균, 위의책, 2009, 495쪽.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ii. 원형석탑의배치

원형석탑4기는석조불감과마주보고있는원형다층석탑, 대웅전서쪽계단앞쪽의원형석탑(일명실패탑),[18] 대웅전동편에있는미륵전앞의발형다층석탑, 대웅전뒤쪽의명당원형석탑이있다. 원형석탑4기모두부분적으로결실된상태이지만원형다층탑과발형다층석탑은층수를제외하고는원형에가깝게유지되고있다. 실패형원형석탑과명당원형석탑은원래의구조형식추정이어렵게보이거나결실이된실정이다. 원형석탑중에원형다층석탑과명당원형석탑은각각석조불감, 방형석탑과짝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원형다층석탑은남쪽5m지점에위치한팔작지붕형태의석조불감과짝을이루어배치된것이다. 석조불감안에는석불좌상2구가벽을사이에두고서로등을마주대고있으며북쪽을바라보고있는불상이원형다층석탑을바라보고있는형태를취하고있다.[19]

명당원형석탑은북쪽방향으로마애여래불이있으며바로앞에는방형석탑이위치하고있다. 이두석탑은서로짝을이루는것으로보이며또한19세기초설담자우스님의수리한석탑으로지목되고있다.[20]이구역이마애여래불의조망적중심에있는운주사의명당지역으로서두석탑을수리한것으로추정하고있는것이다.

원형다층석탑과석조불감의중심선을잇는남북축선은약간어긋나있으며, 명당원형석탑과짝을이루는방형석탑도동일하게남북축선이약간어긋나있다. 축선이어긋난이유를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지형적으로배치가어긋날정도의문제점은없기때문에자연암반의기반위치등어떤이유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고하겠다. 발형다층석탑과실패형원형석탑은현재의배치상태로는짝여부파악이확인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b) 원형석탑의형태및구성.[21]

석탑을이루는구성요소는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등으로크게나누어진다. 원형석탑은그예를찾을수없는파격적인이형석탑이기때문에전형적인석탑의구성명칭을사용하면표현이어색하게보인다고할수있다. 유사석조물인석등의구성명칭과비교하면이해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되어이를참조하고자하였다.[22]석탑이다층이고석등은단층이라는차이만감안하면그이외의구성은동일하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석탑의명칭을석등의명칭으로대입하면지대석, 기단부, 옥개석, 상륜부는석탑과명칭이동일하고기단중석=간주석, 기단갑석=연화상대석, 탑신부=화사부가된다고하겠다.

[18] 이후본원형석탑은실패형원형석탑으로호칭하고자한다.

[19] 이태호・황호균,「운주사불상조각의형식적특징과편년고찰」,『운주사종합학술조사』,전남대박물관,1991, 67~68쪽.

[20] 雪潭自優,「雲住洞佛塔修理後重建藥師殿勸善文」,『雪潭集』卷下,『韓國佛教全書』9, 동국대출판부, 1988, 740~741쪽.

[21] 천득염, 앞의논문, 1991. : 천득염,「운주사의석탑」,『운주사석탑・석불정밀실측조사보고서』, 운주사・화순군, 2007. : 황호균, 앞의책, 2009. 를참고작성하였다.

[22] 석등의구성요소명칭은박경식,『한국의석등』, 학연문화사, 서울,2013, 557쪽을참조했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i. 원형다층석탑.

Figure 3 : Circular stone pagodas and Seokjobulgam

원형다층석탑은지대석, 간주석, 연화상대석, 탑신부의탑신, 원반형옥개석으로구성된다. 현재6층까지남아-있지만최근공개된『조선고적도보』사진에서7층탑신석이발견되어최소7층으로밝혀진것이다.[23] 석탑은간주석을제외한구-성부재가원형을이루고있다.

간주석은10각이지만이10각도원에가까우므로전체석탑이원형부재로구성되었다고볼수있다. 구성석재는원형지대-석이1석, 간주석이5매석으로이루어졌으며연화상대석, 탑신-및원반형옥개석은모두1석으로조성되었다. 연화상대석은하면-과측면에앙련의연꽃문양이얇게조각되어있으며. 이는석등의-상대석과유사한양식및구조형태라고할수있다. 원반형옥개석-은원반이평평하여탑재형조형물임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흥미로운것은이탑의지대석하부를이룬커다란부재의형상이마치거북이모습을하고있어주목되고있다.[24] 운주-사의일주문편액은영구산(靈龜山) 운주사라고되어있다. 운주-사대웅전에서우측산등성이와불쪽으로오르는중턱의넓-은암-반에세워진2탑의이름이각각거북바위교차문7층석탑, 거북바-위5-층석탑이라고불린다. 이암반의이름이거북바위이-기때문-에그렇게호칭되는것으로보인다.[25] 이는풍수적으로거-북의-자리를운주사의주혈(穴)자리로보고그자리에석탑을세웠을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원형다층석탑의지대석하부부재에-거북형태의부조가있는것은원형다층석탑역시풍수적으로영구혈에설치한비보성격의탑이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ii. 실패형원형석탑

실패형원형석탑은대웅전옆의서쪽계단쪽에위치한다. 탑의형태가실을감는실패와닮아서실패형원형석탑으로호칭하고있다. 간주석, 상대석, 탑신부, 원반형옥개석으로구-성되었으며, 간주석은방형이나상대석은장식이없는원형의형-태이다. 간주석은크고작은장대석판석2매를합쳐세워서석주-와같은모습이라고하였다. 상대석은원형판석1매로서장식이-없는원반형이다. 탑신부는작은규모의원형탑신석과원반형옥-개석이1석으로구성되었다.

옥개석은원반형으로탑재기능의형태를취하고있지만장식이없고, 두터워정확히어떠한탑인지판단하기어렵다고할-수없다. 이석탑은석탑관점으로보면완성된형태가아니라고할-수있지만석등의범주인정료대(庭燎臺)와비교하면완성된탑으로볼수있을것이다.[26]

[23] 황호균, 앞의책, 2009, 511쪽.

[24] 천득염, 앞의논문, 1991, 182쪽.

[25] 운주사는거북바위가많다. 공사암역시거북이가죽어서된거북바위라-고-한다. 운주사북쪽, 거북바위가있는산을靈龜山이라한다. 李敦-柱,「화순군도암면지역의지명조사」,『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박물관, 1991, 395~396쪽.

[26] 庭燎臺는야간에관솔불등을태워사찰경내를밝히던석조시설이다. 석등이의례적인성격이라면정료대는조명용성격의시설이라고할수있다. 현재통일신라시대로추정되는해인사정료대가가장오래된정료대-로알려져있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Figure 4 : Circular stone padoda (Silpae pagoda)

Figure 5 : Balhyeongmultistoy stone pagoda

iii. 발형다층석탑

발형다층석탑은대웅전동편에있는미륵전의단아래마당에위치하고있다. 발형다층석탑은탑모양에대한일반적상식을깨뜨리는파격적인모습이다. 지대석, 간주석, 상대석, 원구형탑신겸옥개석으로구성되어있는것이다. 방형의지대석상면에3단의각형괴임이있으며그위에4면의우주가뚜렷하고높직한4개의판석으로짜인간주석을놓아져있다. 상대석은낙수면이완만하게기울어졌으며, 장식이없는원형의1매판석으로이루어졌다.탑신부는상대석위에탑신겸옥개석형태인원구형석괴4석을올려놓았다. 1층과3층의부재는물동이같고2층과4층은중심부에1면을만든주판알과같은모습으로보인다.

일제강점기에발간한『조선고적도보』사진에옥개석이7개로나와있어7층석탑임이확인되었다. 발형다층석탑은어떠한-대상물을석재조각으로표현한현대조각미술작품과같은조형물형태를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iv. 명당원형석탑

명당원형석탑은대웅전뒤쪽암벽에새겨진마애여래불아래의완만한경사지에위치하고있다. 구성은방형기단, 사각갑석위에1층에서3층까지각각원형탑신과원반형옥개석으로이루어졌다. 탑신과옥개석은층이오를수록점차체감되고있으나체감율은일정치않다. 석조불감앞의원형다층석탑과달리원형의기단부대신방형기단부형식을취하고있다. 원형다층석탑의기단은원형이기때문에방형탑신은어울리지않는구성이라고한것이다. 다른석탑의부재를혼합하여조립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원반형옥개석은1~3층이같은형식으로모서리를다듬은원반형이며단엽의연화문16판을돌려장식하였다고한다. 1991년조사당시에는앞쪽의방형석탑지대석위에본원형석탑의부재로추정되는연화문양의원반형석재가놓여있었다고한다. 1993년대대적인보수를시행하면서앞쪽방형석탑의연화문양원반형석재를본탑의3층옥개석으로되돌려2층석탑을3층석탑으로조립하였다고한다.[27] 원형다층석탑에비해탑신이짧고원반형옥개석이얇고넓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석탑은각층의원반형옥개석의체감비율상5층이상의층으로추정되고있다.

마애여래불아래의명당원형석탑주위는명당혈로알려져있어명당원형석탑으로불린다. 19세기초설담자우스님이수리한석탑으로명당탑과앞쪽에짝을이루고있는방형석탑이지목되고있으며,원래형태와원래위치여부는불확실한탑이라고할수있다.

III. 운주사의원형석탑과불교등화시설

a) 불교의등화

불교에서는등을등명이라하며'불·보살의앞에받드는등불', '불·보살의지혜가밝은것을표시함'이라고하였다.[28] 처-님의진리, 설법을법등이라하고스승이제자에게대를이어전하는것을전등이라하였다. 등불은부처님, 불법의중표로서-불교-의례의필수적인법구가되었으며, 많은경전이등화의중-요성과연등공양을최고의공덕으로설하였다.[29] 이러한등불의-중요성과상징성으로인해향불, 꽃과함께불전삼족구가되었-

[27] 황호균, 앞의책, 2009, 137쪽.

[28] 동국역경원. 불교사전http://www.tripitaka.or.kr/

[29] 『燈指因緣經』"불타의진리인광명은암흑과같은사바세계에서헤매고있는중생들을佛身의광명이비치는燈明으로촌각도지체없이善한지경으로인도하는선봉이된다."
『佛說施燈功德經』"탑이나廟의시설물앞에연등공양을하거나임종시등불을밝히면福田과三種明을얻을것이며, 망자를위하여탑묘와부처님앞-에등화를밝히면33천에다시태어나며다섯가지淸淨을얻는다." 燈을보시-하는공덕에대하여설한경전이다.
『華嚴經』권40 '보현행원품'에서는"등화가수미산과같으며, 한종지-의기름은큰바닷물과같아서모든공양중가장으뜸이되는공양"이라고하였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다고할-수있다. 또한사원의중심지인중정에금당, 탑과함께주-요시설-로서배치되었을것이다.

불교의례용연등기구는소형의공예적인연등구와대형의축조또는가구적인연등시설로분류할수있다. 공예적인연등-구는불전의등잔, 등촉구가있으며, 연등회에들고다니거나매-다는윤등이있다. 연등회의소형윤등은원통형, 구형, 다각형-의형태로서현대의연등회에서그맥을잇고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 대형연등시설로는석등과정료대가있으며, 석등은한국에-서는백제미륵사지에서처음조영된이후로사원의중심에필수적으로배치하는주요시설이되었다[30] 정료대는지대석, 기단, 중대석, 상대석으로구성된옥외연등시설로서석등에서화사석-이후를제거한형태와같다.

석등과정료대가처음부터석조물로조영되지는않았-을것이다. 등불에대한신앙심은옥외에설치하는연등시설을전-천후에구애받지않고영구보전하도록석재로건조하였으며, 이에따라석등이출현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는것이다.[31] 석등-과정료대는부처님과불법을상징하는연등시설로서대부분상·하대석에연화문양이장식되어있다. 비록공양성격이있는의례-시-설이지만불상이연화좌대에존상된것처럼화사석을연화-문양으로장식된대좌위에존치된것이다.

b) 둔황석굴벽화의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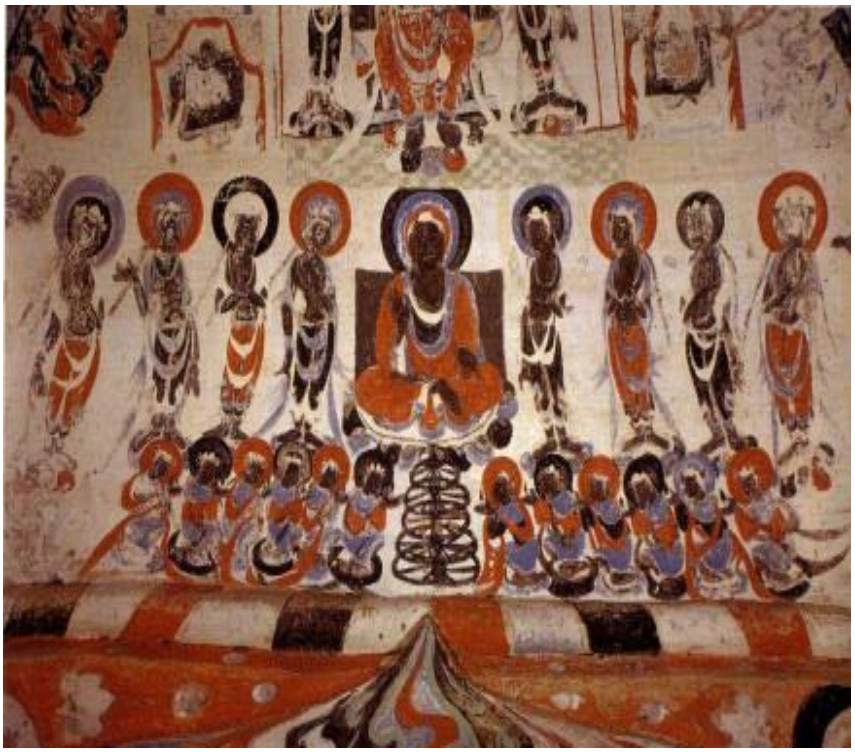


Figure 7 : Back top of Cave 417

둔황석굴은천불동또는막고굴로불리며많은불교관련벽화가있다. 수·당대의둔황석굴벽화중에윤등을묘사한불화-가몇편있다.[32] 이들벽화에서불상전면이나주위에윤등이배치-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둔황417굴의후벽상부벽화는수대(隋581-617)의작-품으로추정되고있다.[33] 중앙불상정면에7층으로보이는윤등이-배치되어있다. 윤등좌우로6인씩12인의보살또는공양인이경-건하게우슬착지의자세로불켜진등잔을들고윤등을향하거나, 윤등위에등잔을올리는모습을하는것으로보인다.

둔황433굴의천정동쪽의약사경변은수대(581-617)의작품으로추정하고있다. 찰주가길게솟아10자를만든윤등형-태의9층연등시설이불상좌우양쪽에쌍탑처럼배치되어있다.

[30] 석등은탑, 불상, 승탑앞에배치되며, 가장오래된석등유구는백제무왕대(600~641)에건립된익산미륵사지에서발견되었다.

[31] 정명호,『한국석등양식』,민족문화사, 서울, 1994, 31쪽.

[32] 둔황석굴의윤등을묘사한벽화는「약사경변도」이다.「약사경변-도」는『약사경』의내용을압축하여그림으로표현한경전이다. 『약사경』은'약사여래불7분을봉안하고각상앞에7개의윤등을배치하며, 등의크기는커다란수레바퀴만하다'고표현하고있다.

[33] 돈황벽화는敦煌文物研究所,『中國石窟敦煌莫高窟』, 文物出版社, 中國北京, 1984, 참조인용하였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윤등옆으로는공손한자세로2열을지은보살또는공양인이등잔을들거나올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이하게약사여래정면에는불을피워화염이솟아오르고있으며옆에는비천인(飛天人)들이불속에공물을넣거나용기를들고불을향해날아오고있다. 433굴의윤등은정면에배치되지않고2기가측면에배치되어있다. 정면에는정료시설로보이는시설이배치되어있다. 다른벽화와달리2기의윤등과정료시설1기의특별한배치라고할수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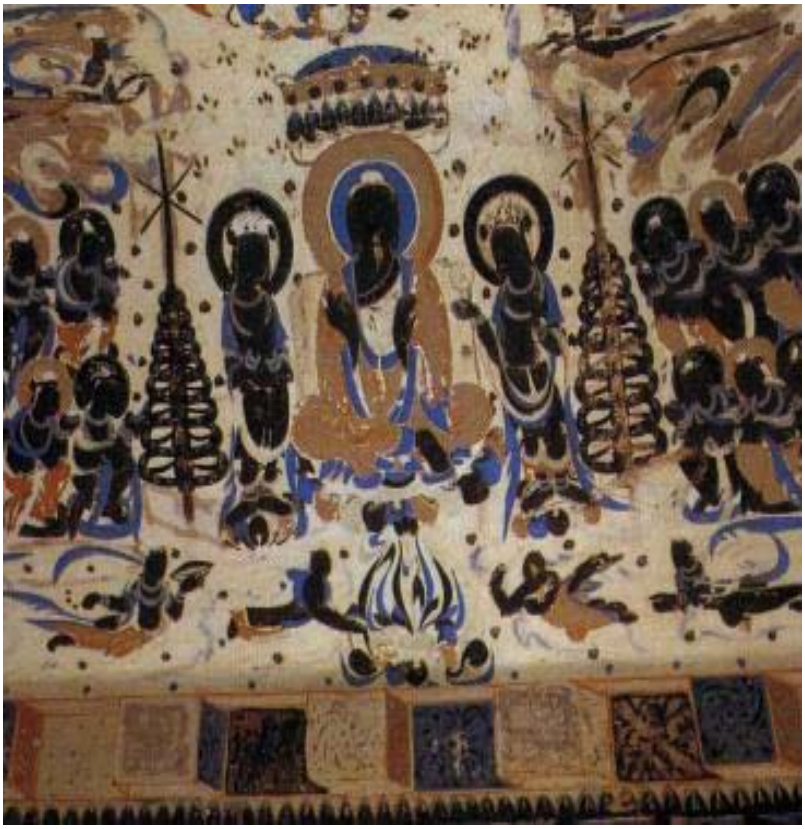


Figure 8 : East ceiling of Cave 433

둔황220호굴은당정관16년(642)으로조성연대가확실하게밝혀진석굴로알려져있다. 이석굴의북벽에는중심축을기준으로단아래좌우양쪽에1기씩2기의윤등이배치되어있는「약사경변도」가있다. 〈Fig.9〉는전체약사경변도중에윤등이나오는우측의일부분을발췌한것이다. 명확하게판단하기쉽지않지만가설된윤등이3개층으로나뉘어한층에2겹또는3겹으로된원반이놓아져총7층으로보이고있다. 원반위에는많은등잔이놓여있다. 공양인이연등공양을하고있고, 다른공양인은무릎꿇어경배하고있는모습이보인다. 윤등의형태는나무를형상한가구형태로서받침대가나무뿌리처럼여러살로뻗어있으며끝모양은귀꽃처럼말아져있다. 이벽화는노래와가무를표현하고있기때문에악무도(樂舞圖)라고호칭하기도한다.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Figure 9 : North wall of Cave 220

둔황159호굴서쪽후벽의그림은중당(781-818)시기-로추정되는벽화이다. 불상을모신금당의앞마당가운데에5-층윤등1기가배치되어있으며, 이웃당간지주에는번이휘날리-고있다. 십자형받침대를가진심주에바퀴모양의윤등이5층을-이루고있다. 윤등앞에는가사입은승려가점등을하려고서있-으며, 높이는2미터가넘게보인다.

둔황석굴벽화에나오는윤등은여러개의바퀴형태의-원반을다층으로쌓고, 각층에등잔을-올려놓는다등식연등시-설로표현되어있다. 윤등의층수는5층, 7층, 9층으로다양하며-불상정면또는측면에1기또는2기가배-치되고있다.

윤등이표현된둔황벽화는『약사경』의내용을그림으로표현한「약사경변도」이다. 이벽화를통하여윤등배치의근-거경전은『약사경』임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둔황벽화에묘-사된윤등의형태및배치는문헌자료의한계를보완하는좋은참고자료가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IV. 윤등과운주사의원형석탑.

운주사에는전통적인사원이라면주불전의중정에배치되어야할석등이존재하지않는다. 파격적인운주사의성격에-비교될수있지만불교에서연등에대한중요성을감안하면석등이없다는것은주목되는현상이된다고하겠다.

운주사는석등의범주인윤등을원형석탑의성격으로건조하여배치함으로서석등을가름했던것으로보인다. 윤등은부-처님과불법을상징하는법륜과등불로구성된등화로서불교의례및공양시설중에서최고의상징성을갖추고있기때문에연등시설에대하여운주사는최상의선택을했다고할수있는것이다.

『약사경』에는팔계재를행하고7기의윤등과번(幡)을설치하여의례를행하면소재초복(消災招福) 한다고하였다. 『약사경』의내용은둔황벽화의「약사경변도」에표현되었으며, 내용과같이윤등이설치되었던것이다. 둔황벽화에보이는-가설윤등을석재로번안한다면운주사의원형석탑과유사한형태가될수있다.

원형석탑은둔황벽화및팔관회설행시에한시적으로설치하던윤등을영구적인석재로만든의례용연등시설이라고할수있다. 전천후에구애받지않고영구적으로보전하려는의도로-윤등을석재로건조하게된것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원형석-탑의원반형옥개석은원반이평평하여그위에도구나공양물을놓는탑재기능의구조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원반형옥-개석은탑으로보면지붕이지만석등으로보면등잔을탑재한화사석이되는것이다. 등잔을탑재하는위치가내부또는외부의정-도에차이가있을뿐이며, 원형석탑의구조및형태는석등과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원형석탑은원반형화사석을여러개-의층으로건조한석탑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대웅전서쪽계단앞쪽에위치한실패형원형석탑은정료대에서한층을더올린형태와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구조적-으로원형다층석탑과기단이방형인점과두터운원반이외에는유

© 2016 Global Journals Inc. (US)

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실패형원형석탑을연등시설로-보기에는한계가있는것같다. 연등시설은부처님을상징하기-때문에원형다층석탑이나명당원형석탑과같이상대석이나원반형옥개석에는연화문양이있다. 실패형원형석탑의원반에는-연화문양이나다른장식이보이지않고있다. 그러므로실패형원-형석탑은석등의범주는아니라고판단된다.

발형다층석탑은원형석탑이지만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는원반형원형석탑과다른원구형이기때문에본장에서는생략하고자한다.

윤등은부처와불법을상징하는법륜과등불이조합된-불교최고의상징적인의례시설이라고할수있다. 한시적이고가-설적인윤등을영구적인의례시설로만들고자하였으며, 그장소-로서운주사를선택하여석재로번안하여윤등석탑을건립하게된것이라고할수있다.

V. 결론

원형석탑은운주사의공간적, 상징적중심에배치되어-있으며, 그중심성은운주사의성격과정체성을파악하는상징적-인존재가되고있다. 원형다층석탑은운주사의공간적중심의비-보석탑이며, 명당원형석탑은마애여래불앞명당자리의상징적-중심의비보석탑배치로추정된다.

석주형폐탑4기는원형석탑이결실된잔재로보이며, 사역에산재한원형석탑부재수로볼때원반형원형석탑은현재보다그수효가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실패형원형석탑은석등에서화사석이후의부재를생략한정료대에원반한층을더올려만든형태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거의완-성된형태의탑으로볼수있지만다른원형석탑과같이연등시설은아닌것으로보인다.

윤등은둔황석굴의약사경변도, 팔관회장소에배치되-었던연등시설로서, 바퀴모양의원반여러개를적층하고그위-에향등을올려놓고불을밝히는한시적(限時的)인가설(假設)시설이다. 부처와불법을상징하는불교최고의상징물인법륜과-등불로구성된윤등을영구보전하기위하여석재로만든다면, 운주사의원형석탑과동일한형태가된다고하겠다. 운주사원형-석탑은윤등적인성격을가진석탑으로판단되는것이다.

본논문에서는운주사원형석탑이연등시설인윤등적성격을가졌다고판단하였다. 이후로운주사원형석탑의호칭을'-윤등석탑'으로부를수도있을것이다.

References Références Referencias

『History of Goryeo』(高麗史)
『Goryeo Chronicles』(高麗史節要)
『Samguksagi』(三國史記)
『Samgukyusa』(三國遺事)

1. Clare Gibson, translated by Arum Jang,『How to read symbols: a crash course in the meaning of symbols in art』, Biznbiz, Seoul, 2010.
2. The nationnal folk museum of Korea, 『China's Big sesigi』, 2006.
3. 敦煌文物研究所,『中國石窟敦煌莫高窟』, 文物出版社, 中國北京, 1984.
4. http://buddha.dongguk.edu/bs_list.aspx
5. http://www.tripitaka.or.kr/
6. Gyeongsik Park,『Stone Lanterns in Korea』, Hakyeon Munhwasa, Seoul, 2013. 「Consideration of Stone Pagoda in HwasunUnjusa Temple」,『Museum Bulletin』5, Dankook Univ. Museum, 1989.
7. Jiwon An,『Buddhist Ritual and Culture of Goryeo』, SNU, Seoul, 2006.
8. Mirim Lee, Juhyeong Lee and Others,『Oriental Art History』, Mijinsa, Seoul, 2007.
9. Taeho Lee · Hogyun Hwang,「Annals and Features of Buddhas in Unjusa」,『Comprehensive Scientific Research of Unjusa Temple』, Chonnam Univ. Museum, 1991.
10. Myeongho Jeong,『Korea stone lanterns form』,Minjokmunhwasa, Seoul, 1994.
11. Jee,Seong-nam,『The Bhaisajyaguru-Sutra』Kwang-rok-sa, Seoul, 2013.
12. Deukyeom Cheon,「A Study on the Design Charateristics of the Stone Pagodas in Unjusa Temple」,『Comprehensive Scientific Research of Unjusa Temple』,Chonnam Univ. Museum, 1991.「Stone Pagoda of Unjusa」,『Precision Survey of Stone Pagodas and Buddhas in Unjusa』, Unjusa · Hwasun-gun, 2007. 「Construction Features of Stone Pagodas in Unjusa as World Heritage」,『Research of Honam Culture』Vol. 54, Institute of Honam Studies, 2013.
13. http://abc.dongguk.edu/ebti/index.jsp
14. Hogyun Hwang,『Compilation Data of Unjusa』, Chonnam Univ. Museum · Hwasun-gun Office, 2009.
15. Restoration-based research Hwangyong templ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yeongju-si, 2010.
16. http://www.unjusa.org/.

© 2016 Global Journals Inc. (US)